

# 宋初 三先生이 北宋古文運動에 미친 영향 연구

— 歐陽修와 石介의 교유를 중심으로

李承信\*

## <목 차>

1. 들어가며
2. 北宋 古文運動과 宋初 三先生
  - 2.1 宋初 三先生の 지위와 역할
  - 2.2 歐陽修와 石介의 관계
3. 歐陽修와 石介의 교유 양상
  - 3.1 文道觀의 異同
  - 3.2 우정과 충고
4. 나가며

## 1. 서론

范仲淹, 歐陽修, 胡瑗, 石介, 孫復 등은 北宋의 정치와 학술을 주도하고 고문 운동을 이끈 대표 문인학자들이다. 이들은 문인집단을 이루며,<sup>1)</sup> 同僚, 知友, 師弟 등의 관계 속에서 문학과 정치에 대한 의론을 함께 하고 지성인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시문과 정치의 개혁에 동참하며, 개인적 인품과 정치적 성향, 文道觀 등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으므로, 본고는 이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이를 위한 일련의 연구 단계로 唐宋八家의 一人으로 문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歐陽修와 宋初三先生으로 불리는 石介의 교유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외래교수.

1) 樓培, <北宋洛陽文人集團與南北文學的衝突和融合> (《中華文史論叢》, 2012) 참조.

양상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歐陽修와 石介는 개인적 관계나 학문적 연관성의 측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학계에서는 아직 이들의 상호 관계에 대해 주목하지 않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비슷한 知友이면서 같은 해 등과한 동료이기도 했던 이들은 매우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이 점에 착안해 그들이 주고받은 문장을 위주로 궤적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歐陽修의 《歐陽文忠公集》과 石介의 《徂徠石先生文集》에 보이는 양자의 교유관계와 관련된 문장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그 안에 드러나는 양자의 문도관과 사상의 異同, 교유 가운데 보이는 개인적 인연 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北宋 古文運動과 宋初 三先生

### 2.1. 宋初 三先生の 지위와 역할

宋初 三先生 胡瑗, 孫復, 石介는 理學을 창시한 학자이자 사상가이다. 유학자들이 章句 해석과 義理에 치중한 데에서 벗어나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治道’를 주장하며 宋學의 정신으로 삼았다. 이 시기는 신진사대부들이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여 북송 정권 하에서 문벌귀족의 우위를 점하게 되는 변화의 시기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三先生은 ‘治道’의 정신으로 강학하고 고문운동을 승상했다.

宋이 흥한 지 80년이 지나 安定 胡瑗 선생, 泰山 孫復 선생, 徂徠 石介 선생이 비로소 師道로 학문을 바로 세웠고, 이를 계승하여 周敦頤와 二程의 理學이 흥하였다. 그러므로 지금의 理學이 二程에 와서 훌륭하지만 실은 세 선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晦庵 朱熹는 伊川 程頤가 감히 세 선생을 잊지 않는다고 했다.<sup>2)</sup>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三先生은 理學을 창시하여 선구적 역할을 했다.

먼저, 胡瑗(993~1059)은 泰州 海陵 혹은 如臯 사람으로 자는 翼之이다. 그는 '安定先生'으로도 불리며 仁宗 景祐 초에 雅樂을 제정하고 范仲淹의 초빙으로 蘇州府學 교수를 지냈다. 원칙에 입각한 가르침으로 수백 명의 제자들을 길러냈으며 후에 太學博士와 太子中允 등을 지냈다. 皇祐 연간에는 國子監直講, 嘉祐 초에 天章閣待制, 太常博士 등을 맡아 지내는 동안 禮部에서 열에 네 다섯은 그의 제자일 정도로 무리가 상당했다. 孫復, 石介와 함께 학문에 정진하고 인의예악을 제창하며, 당시 부화한 문풍에 반대하고 六經을 바탕으로 '明體達用之學'을 주장하여 송대 理學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선생께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 말씀하신대로 행하고 몸소 실천하시니 진실로 총명한 자로 하여금 현달하게 하고 우매한 자로 하여금 더욱 힘쓰게 하고 고집 세고 오만한 자로 하여금 바꾸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법을 행하심이 엄격하고 신실하고 그 도를 행함이 오랫동안 존경을 받습니다. 師道가 폐해진 지 오래되었는데, 明道 景祐 이래로 학자들 중에 진정한 스승이 계셨으니 오로지 선생과 태산의 손명복과 석수도 세 분뿐으로 스승들 중 가장 훌륭하십니다.

그가 호주에서 학문을 가르칠 때 왕래하는 제자들이 늘 수백 명이었는데 각자가 경을 서로 전수했고, 교학의 방법이 가장 갖추어졌습니다. 그것을 행한 지 수년 만에 동남의 선비들이 인의예악을 배움으로 삼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 십년 후 선생이 비로소 태학에 오셔서 거하셨습니다. 배우는 자들이 먼 곳으로부터 이르니 태학이 다 수용할 수가 없어 옆에 관사를 취해 학사를 만들었습니다. 예부공거에서 해마다 얻는 선비 중에 선생의 제자 중 열에 네다섯은 좋은 성적으로 급제한 자인데, 당시에 명성을 날려서 혹은 갑과에 합격하여 높은 벼슬을 차지했습니다. 나머지는 사망에 흩어져 그 사람의 현명함과 우둔함에 따라 언행이 우아하고 점잖았습니다. 그 말과 행동을 보면 만났을 때 묻지 않아도 선생의 제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배우는 자들이 서로 '선생'이라 칭하면 묻지 않아도 호공임을 알 수 있습니다.<sup>3)</sup>

2) 《宋元學案·泰山學案》: 宋興八十年, 安定胡先生, 泰山孫先生, 徂徠石先生始以師道明正學, 繼而濂洛興矣. 故本朝理學雖至伊洛而精, 實自三先生而始, 故晦庵有伊川不敢忘三先生之語.

3) 《歐陽文忠公集·胡先生墓表》: 先生爲人師, 言行而身化之, 使誠明者達, 昏愚者勵, 而頑傲者革. 故其爲法嚴而信, 爲道久而尊. 師道廢久矣, 自景祐明道以來, 學者有師, 惟先生暨泰山孫明復石守道三人, 而先生之徒最盛. 其在湖州之學, 弟子去來常數百人, 各以其經轉相傳授,

孫復(992~1057)은 石介의 스승으로 晉州 平陽 사람이며 자는 明復이다. 북송시기 정치가, 교육가로 활동했는데, 과거에 급제를 못하고 泰山에 들어가 20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泰山先生'으로 불렸다. 慶曆 2년(1042) 范仲淹과 富弼의 추천으로 秘書省校書郎에 나가 國事監直講, 殿中丞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春秋》 연구와 강학에 힘썼으며 陸淳의 학문을 계승하고 董仲舒를 추승했으며 북송 초기 理學의 학풍을 열었다. 그는 儒家의 道統을 지향하고 楊朱, 墨翟의 설과 불교, 도교를 배척했는데, 石介가 그에게서 사사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학문적·정치적·문학적인 견해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알고 지낸 것은 景祐 元年(1034) 仁宗 때로 당시 29세의 石介는 이미 관직에 있었지만 42세의 孫復은 아직 등과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石介가 孫復을 스승으로 모시며 孫復을 태산으로 가게 해서 많은 제자들이 그의 문하에 있게 되었다.<sup>4)</sup>

선생의 나이 마흔을 넘었는데 집안이 빈한하여 장가를 들지 못하였다. 승상이 적이 장차 그 아우의 딸을 처로 삼게 하려 하니 선생이 이에 의문을 품었다. 石介가 여러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 말하였다. “공경이 자신을 낮추어 선비를 대우하지 않은 지가오래인데 지금 승상께서 선생이 빈천한 것을 개의치 않고 그 딸을 맡기려고 하시니 이는 선생의 행위를 높이 사신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의당 승상의 어진 명성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이에 허락하였다. 공급사 도보가 사람됨이 강직하고 진중하며 다른 사람과 망명되어 더불어 지내지 않는데, 선생의 풍문을 듣고 가서 그를 만났다. 石介가 지팡이와 신발을 들고 좌우에서 시중을 들며 선생이 앉으면 일어서고 절을 올리고 내릴 때 부축하였다. 그가 가서 사례를 드릴 때에도 역시 그렇게 하였다. 노 땅 사람들이 본디 이 두 사람을 높이 평가했는데 이로 인해 비로소 사제 간의 예를 알게 되어 경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이승상과 공급사 역시 이로 인해 사대부들에게 칭송받았다.<sup>5)</sup>

其教學之法最備。行之數年，東南之士，莫不以仁義禮樂爲學。……後十餘年，先生始來居太學，學者自遠而至，太學不能容，取旁官署以爲學舍。禮部貢舉，歲所得士，先生弟子，十常居四五，其高第者，知名當時，或取甲科，居顯仕。其餘散在四方，隨其人賢愚，皆循循雅飭。其言談學止，不問可知爲先生弟子，其學者相語稱先生。

- 4) 徐波, <石介將孫復推上“文公儒師”之位> (《文史知識》 01期, 2013) 참조.  
 5) 《歐陽文忠公集·孫明復先生墓誌銘》: 先生年逾四十, 家貧不娶, 李丞相迪將以其弟之女妻之。先生疑焉, 介與群弟子進曰, 公卿不下士久矣, 今丞相不以先生貧賤而欲托以子, 是高先生之行義也, 先生宜因以成丞相之賢名, 于是乃許。孔給事道輔爲人剛直嚴重, 不妄與人, 聞先生之風, 就見之。介執杖屨侍左右, 先生坐則立, 升降拜則扶之, 及其往謝也, 亦然。魯人既素高此

孫復은 송대의 경학가로서 泰山先生이라 불렸다. 훌륭한 인품과 재주를 갖추었지만 진사시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여 泰山에 은거하였는데, 范仲淹과 富弼, 石介 등이 그가 훌륭한 경술을 지녔다고 추천하여 조정에 있게 되었다.<sup>6)</sup>

石介(1005~1045)의 자는 守道, 公操이며 兗州 奉府(지금의 山東省 泰安市 岱岳區 徂徠鎮 橋溝村) 사람이다. 泰山書院과 徂徠書院을 창건하여 《易》, 《春秋》 등을 유생들에게 교학하며 孫復, 胡瑗과 함께 송대 이학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 일명 ‘泰山學派’의 창시자로서 ‘理’, ‘氣’, ‘道統’, ‘文道’ 등의 이론으로 후대 二程과 朱熹 등에게 크게 영향을 끼쳤다. 그는 天聖 8年(1030)에 진사에 급제하여 國子監直講을 거쳐 太子中允의 관직에까지 이르렀다. 孫復, 胡瑗과 함께 인의와 예악으로 학문을 강구했고 백성이 나라의 근본임을 주장했다. 儒家의 입장에서 佛敎와 道敎에 반대하고 황권을 내세워 북송 초기 중앙집권강화의 논지를 강화했다. 그는 문장을 반드시 儒家의 道統에 힘써야하며 <怪說> 등의 문장을 써서 배격했다.

이처럼 胡瑗, 孫復, 石介는 傳疏에 치중한 경학 연구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우고 ‘治道’를 구하였고, 강학을 통하여 유가의 經世治民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師道를 확립했으며 이단을 축출하고 佛老에 반대했다. 또한 文道の 관계를 중시하며 고문운동을 적극 추승했다. 고문운동이 추진하는 文風과 文體의 변화, 傳道の 취지를 지지했으며 유가에서 지향하는 이상적인 인격의 수양과 사회 질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사유에 동조하며 유가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sup>7)</sup> 따라서 이들은 歐陽修가 주도한 북송 고문운동과 밀접한 영향 관계에 있었으며, 歐陽修와의 교류를 통해 북송 문단

兩人, 由是始識師弟子之禮, 莫不嘆嗟之, 而李丞相孔給事亦以此見稱于士大夫.

6) 《宋史·卷四百三十二·儒林傳》: 孫復字明復, 晉州平陽人, 舉進士不第, 退居泰山, 學春秋著尊王發微十二篇, 大約本於陸淳而增新意. 石介有名山東自介而下皆以先生事, 復年四十不娶. 李迪知其賢, 以其弟之子妻之. 復初猶豫, 石介與諸弟子請曰公卿不下士久矣. 今丞相不以先生貧賤欲託以子宜因以成丞相之賢名. 復乃聽孔道輔聞復之賢就見之. 介執杖履立侍復左右升降拜則扶之, 其往謝亦然. 介既爲學官語人曰, 孫先生非隱者也. 於是范仲淹富弼皆言復有經術宜在朝廷除秘書省校書郎國子監直講.

7) 張君, <宋初三先生‘治道’思想初論>(中國政法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 참조.

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북송 고문운동은 화려한 문체에만 집착하는 변려문의 폐단을 극복하고 당대 한유의 문장을 추승하며 문장가들에게 文道를 전하는 충실한 내용과 아름다운 장구를 구현하는 데 주력했다. 歐陽修를 중심으로 서원에서 수학하고 과거를 통해 입신한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고문운동에 동참했고 宋代 六家를 배출해 내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다수의 문인들이 인정한 宋初 三先生의 영향력은 문학과 정치 영역에서 크게 발휘되었으며, 후세에까지 널리 전해지게 되었다. 孫復, 胡瑗, 石介는 문인들을 길러내는 서원에서 교육을 전담하고 국학 연구에 동참하는 등 그 능력을 인정받아 정치적 활약도 함께 했다.

이와 같이 宋初 三先生은 북송시기 문단의 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들의 문학관과 정치관 등은 북송 고문운동을 주도하던 문인들과 상당부분 일치했다. 이들은 范仲淹의 慶曆新政, 歐陽修의 고문운동과 뜻을 함께 했고 그들이 쓴 문장 또한 이를 실천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 2.2. 歐陽修와 石介의 관계

歐陽修(1007~1072)는 唐宋八家の 일인으로 北宋 고문운동을 주도하며 中國散文史上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과거제도를 엄격하게 추진하여 문벌사족대신 신진사대부들을 대거 등용하여 당시 문단의 영수 역할을 했다. 그의 字는 永叔이며, 호는 醉翁, 시호는 文忠이다. 四川省 綿陽에서 태어났고, 湖北省 隨州에서 자랐다. 빈한한 가정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수학하여 등과했다. 어려서 4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종이 살 돈이 없어서 땅 위에 글씨를 써서 글자를 익혔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10세 때 韓愈의 문장을 읽고 감복하여 송대 고문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어려운 문체로 문장의 화려함을 추구하지 말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쉬운 문체를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수차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였는데, 당시 한림학사 胥偃을 찾아가 그의 문하생이 된 뒤, 天聖 8년(1030) 진사

시에 합격했다. 이 때 石介도 같은 해 진사시에 합격하여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

石介(1005~1045)는 본래 대가족 농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조상 가운데에 관직을 지낸 사람이 없었으나 그 부친 石丙이 1012년에 진사에 급제했다. 石丙은 三家의 《春秋》를 연구하여 太子中舍의 자리에 올랐고 太常博士의 자리까지 올랐다. 石介는 스무 살이 넘자 魏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북송 초 고문가인 柳開의 자취를 살피고 추송했으며 나중에는 宋城(지금의 河南省 商丘)으로 남하하여 南都學舍에 들어갔다. 정치가이며 문학가인 范仲淹에게서 수학하였고 天聖 8年(1030) 26세의 나이로 진사에 합격하여 鄆州觀察推官을 배수받았다. 石介는 三家 《春秋》의 학문에 정통한 부친의 영향 하에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石介는 진사에 합격하기 전 天聖 5年(1027) 그의 나이 23세에 應天府에서 范仲淹에게서 수학하였다. 당시 晏殊가 학문을 부흥시키고 인재를 교육하는 일을 중시하여 범중엄이 모친상을 당하여 집에서 기거하는 것을 알고는 范仲淹에게 應天府書院을 맡아줄 것을 부탁했다. 石介가 바로 이 때에 응천부에 와서 范仲淹으로부터 학문을 익히고 교육을 받아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石介가 학문적 기초를 닦고 비교적 이른 나이에 진사에 합격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따라서 范仲淹과의 인연은 石介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石介는 范仲淹을 자신의 도덕과 학문의 스승으로 여기고 교유하며 道를 함께 했다. 당시 범중엄의 명성이 자자하여 사방에서 젊은 유생들이 몰려들어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고 이 인재들은 慶曆新政 때에 모두 范仲淹의 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이 되었고, 歐陽修 역시 그와 뜻을 함께 했다.<sup>8)</sup> 젊은 시절 石介는 뜻이 곧고 好學하여 빈궁한 처지에서도 학문에 정진하였다. 天聖 7年(1029)에는 石介가 河朔을 유람하며 柳開를 추모하고 찬미하며 고문가의 道統으로 인정했다. 石介가 26세에 진사에 급제하기 전 <過魏東郊> 시에서 柳開를 찬미하고 그의 古文의 道統에 대해서 王通과 韓愈와 견줄만하다고<sup>9)</sup>

8) 李承信, <范仲淹과 歐陽修의 교유관계 연구>(《中國學論叢》 제 26권, 2009) 참조.

9) <徂徠石先生文集·過魏東郊>: 全魏地千里, 雄大視區宇. 黃河爲血脉, 太行爲筋膂. 地靈育聖賢, 土厚含文武. 堂堂柳先生, 生下如猛虎. 十三斷賊指, 聞者皆震怖. 十七著野史, 才俊凌選固. 二十補亡書, 辭深續堯禹. 六經皆自曉, 不看注與疏. 述作慕仲淹, 文章肩韓愈. 下唐二百

추대하면서 古文의 전통을 계승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齊魯 지역의 고문의 전통을 추앙하고 匈奴와 幽州를 없애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워하며 애국적 역사적 책임감을 문장 안에서 표출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歐陽修와 石介는 나이가 비슷한 동년배로 모두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을 극복하고 각고의 노력과 학문적 열정으로 같은 해 진사시에 합격해 관직에 올랐다. 양자 모두 范仲淹과의 인연이 깊으며, 慶曆新政을 지지하고 북송 고문운동을 추진하면서 정치적·학문적 교류를 함께 했다.

### 3. 歐陽修와 石介의 교류 양상

#### 3.1. 文道觀의 異同

歐陽修와 石介는 慶曆新政과 고문운동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동일한 행보를 했지만, 상이한 학술관점으로 인해 쟁론을 벌이기도 한다. 歐陽修는 石介의 천하에 대한 근심, 세상을 구하려는 의지, 충성심, 옛 것을 헤아려 道를 밝힌 공로를 칭송했다. 또한 石介의 문장이 道를 담고 있으며, 문사가 웅장하고 심원하여 사상성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石介의 문장은 사실 韓愈의 險怪함을 계승하고 기이한 것을 좋아해서 북송 고문운동을 함께한 문장가들과는 약간 다른 일면을 보이고 있다. 이 점에서 歐陽修는 石介의 정치 이상과 사상은 칭송했지만 그의 문장에 대해서는 평가를 높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歐陽修가 石

---

年，先生固獨步。投篇動范杲，落筆驚王祐。四方交豪傑，群公走聲譽。一上中高第，數年編士伍。五命爲御史，連出守方土。事業過臯夔，才能堪相輔。鳳凰世不容，衆鳥競嘲訴。獄中飢不死，特地生爪距。貔貅十萬師，盟津直北渡。塞上諸猛將，低頭若首鼠。渴憶海爲漿，飢思螯爲脯。兩手拿人肝，大床橫牛肚。一飲酒一石，賊來不怕懼。眼下立孫吳，樽前坐伊呂。笑談鞞鈴間，出入經綸務。匈奴恨未滅，獻策言可膚。幽州恨未復，上書言可取。好文有太宗，好武有太祖。先生文武具，命兮竟不遇。死來三十載，荒草蓋墳墓。四海無英雄，斯文失宗主。豎子敢顛狂，黠戎敢慢侮。我思柳先生，涕淚落如雨。試過魏東郊，寒鴉啼老樹。丈夫肝胆喪，眞儒魂魄去。瓦石固無情，爲我亦慘沮。



介와 관련해서 쓴 문장 안에서 그의 詩文과 관련한 평가는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sup>10)</sup> 歐陽修는 道가 충실하면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발휘된다고 여겼으며, 당시의 時文을 반대했다.

무릇 세상에는 스승이 없고 학자는 반드시 경을 스승 삼아야 한다. 경을 스승 삼으려면 반드시 먼저 그 뜻을 구하여야 한다. 뜻이 얻어지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도가 순수하게 된다. 도가 순수하면 안에서 충만한 것이 실하고 안에서 충만하여 실하면 문장으로 발하는 것은 빛이 나고 세상에 베풀어지는 것은 과감하고 견고하다.<sup>11)</sup>

歐陽修는 文道の 관계에서 道가 文에 미치는 작용을 중시했으며, 太學體에 부정적이었다. 그는 楊雄과 王通이 충만하고 순수한 道에 충실하지 않고 모방하는 문장을 쓴 것에 대해 道를 배우지 않고 문사만을 좇는 太學體를 쓰는 것에 반대했다.

성인의 문장에 비록 미칠 수는 없지만 대저 道가 뛰어나면 문장은 어렵지 않게 절로 지극해진다. 그러므로 맹자가 바쁜 와중에 글을 쓸 틈이 없었고 순자 역시 만년에 가서야 글을 썼다. 양자운이나 왕통 같은 이는 바야흐로 면려하여 언어를 모방하였으니 이는 道가 부족한데 억지로 말을 한 것이다.<sup>12)</sup>

歐陽修는 錢勳演이 주도하던 時文의 폐단을 적극 비판하고 韓愈의 문장을 추송하며 사회 현실과 밀접한 儒家의 道를 강조했다.

石介 역시 불가와 도가를 배격하고<sup>13)</sup> 仁義를 내세우는 유가의 道를 주장하

10) 歐陽修의 <與石推官第一書>, <與石推官第二書>, <上杜中丞論學官書>, <讀徂徠集>, <重讀徂徠集>, <贈杜默>, <讀張李二生文贈石先生>, <鎮陽讀書>, <徂徠石先生墓誌銘> 등의 문장에서 石介와 관련된 내용이 보인다.

11) <歐陽文忠公集·答祖擇之書>: 夫世無師矣, 學者當師經. 師經必先求其意, 意得則心定, 心定則道純, 道純則充于中者實, 中充實則發爲文者輝光, 施于世者果毅.

12) <歐陽文忠公集·答吳充秀才書>: 聖人之文雖不可及, 然大抵道勝者文不難而自至也. 故孟子皇皇不暇著書, 苟卿蓋亦晚而有作, 若子雲仲淹, 方勉焉以模言語, 此道未足而強言者也.

13) <徂徠石先生文集·怪說上>: 甚矣. 中國之多怪也. 人不爲怪者, 幾少矣. 噫, 一日蝕一星縮, 則天爲之不明, 一山崩一川竭, 則地爲之不甯, 釋老之爲怪也. 千有餘年矣, 中國蠹壞亦千有餘年矣. 不知更千餘年, 釋老之爲怪也如何. 中國之蠹壞也如何. 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不生.

고 孔孟 이래 韓愈로 이어지는 師道の 맥락을 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眞宗과 仁宗초기에 형식만을 일삼는 西崑波가 유행하였는데, 당시 楊億과 劉筠이 이러한 형식주의를 추구했다. 石介는 부화하고 화려한 문풍에 반대하고 이들의 문풍을 비난했다.<sup>14)</sup>

石介는 '文'과 '道'의 관계에서 '道'를 우위에 두긴 했지만 '文'의 가치를 매우 중시했다. 그는 문장의 풍격에서 '豪' 즉 호방함을 추구하고 문학 창작에 있어서 이를 실천하고자 했다. 비록 그의 문장이 宋六家에 비하여 저명하진 않지만 范仲淹, 歐陽修 등과 교유하며 함께 문단활동과 정치활동을 추진했고 經歷新政을 적극 지지하며 그 사상과 문학적 실천을 한 상황에서<sup>15)</sup> 그의 문장의 의의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石介의 산문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문학과 예술성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북송 초 문학과 산문발전사상 그 가치와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는 西崑體의 표현방식을 반대하여 楊億을 비평하고 太學體를 주장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石介를 太學體의 창시자로 평가한다. 물론 太學體의 형성은 복잡한 여러 요인들이 작용했지만 石介가 유학을 추진하고 문풍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 3.2. 우정과 충고

歐陽修와 石介는 동년배의 친한 친구이며, 泰山書院에서 서로 글을 주고 받으며 교유했다. 양자 모두 개혁을 지지했는데, 范仲淹은 石介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의 단점을 잘 알고 있어서 그를 좋아하지는 않았다. 반면, 歐陽修는 동년배라서 더 친근하기 때문에 石介의 단점을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었고, 자신의 의견과 친구를 위한 충고를 솔직하고 대담하게 전하는 글을 주고받았다. 歐陽修는 知友 石介에게 두 편의 서신을 보내어 石介의 문학관을 비평하고 그

14) <徂徠石先生文集·怪說中>: 而爲楊億之窮研極態, 綴風月, 弄花草, 淫巧侈麗, 浮華纂組, 其爲怪大矣. 是人欲去其怪而就於無怪, 今天下反謂之怪而怪之. 嗚呼.

15) 姚艷麗, 《石介與宋初文學》(華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 참조.

의 문체가 기이하고 황당함을 비판했다. 景祐 2년(1035) 歐陽修는 <與石推官書第一書>를 石介에게 보낸다.

‘스스로 지나치게 높게 여기고 너무 지나치게 비난하는 단점이 있어 그가 논하는 것은 근원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일에는 본말이 있으므로 갑작스레 말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서로 만나야 다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일이 생겨서 지금 자세하게 말하니 이것은 그대가 아침에 듣고 저녁에 고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먼저 말해보는 것이다. 王拱辰의 집에 그대가 손수 쓴 편지 한 통과 《二像記》 石本이 있어서 처음 보고선 놀라서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천천히 자세히 보니 점획을 분간하고 점차 알 수가 있었다. 아! 얼마나 심히 괴이했는지! ..... 하물며 지금의 서법이 이전으로는 옛 것을 따르지 않고 이후에는 서법이라 하기에는 부족하니, 비록 천하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더라도 행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천하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아니라 하는데 혼자서 그렇게 행하면 어찌할 것인가? ..... 지금 그대가 정연하게 학사에서 기거하며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일로 스승이 되었는데, 오히려 당황스럽게 스스로 기이하게 행하니 학문하는 이들이 어찌 모범으로 삼겠는가? 불행히도 학자들이 모두 그것을 따라 본받으니 그대는 그래도 유독 기이하게 행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속히 멈추지 않으면 후일에 후학들이 괴이함을 좋아하는 자들을 책망할까 걱정이다.’<sup>16)</sup>

당시 歐陽修는 西京留守推官의 임기를 다 채우고 館閣校勘을 맡기로 했고, 石介도 鄆州推官의 임기가 다 되어 南京의 學官으로 옮길 예정이었다. 歐陽修가 자리를 옮기기까지 일 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때 친구 石介에게 서신을 보낸 것이다. 石介의 <怪說>과 <中國論> 등의 문장에 대해서 대답하고 솔직하게 비평했으며, 石介가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자만에 빠져있고 기괴한 것에 미혹되어 있음을 비판하고 자신을 일깨우도록 충고했다. 歐陽修는 石介와 밀접한 교유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太學體를 반대했기 때문에 石介의 시문

16) <歐陽文忠公集·與石推官書第一書>: 有自許太高, 詆時太過, 其論若未深究其源者. 此事有本末, 不可卒然語, 須相見乃能盡. 然有一事, 今詳而說, 此計公操可朝聞而暮改者, 試先陳之. 君旣家有足下手作書一通, 及有二像記石本, 始見之, 駭然不可識, 徐而視定, 辯其點畫, 乃可漸通. 吁, 何怪之甚也. .... 況今書前不師乎古, 後不足以來者法, 雖天下皆好之, 猶不可爲, 況天下皆非之, 乃獨爲之, 何也. .... 今足下端然居乎學舍, 以教人爲師, 而反率然以自異, 顧學者何所法哉, 不幸學者皆從而效之, 足下又果爲獨異乎? 今不急止, 則懼他日有責後生之好怪者.

에 대해서는 언급을 최소화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歐陽修의 石介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두 사람의 상이한 의견을 조명해볼 수 있다. 두 사람이 ‘異’와 ‘常’을 구별하고 달리 인식한 점과 양자의 문도관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石介는 歐陽修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신을 써서 이를 반박했다.

서신에서 내가 스스로 지나치게 높게 여기고 비난할 때 지나치게 과하다고 말했는데, 그 논의는 근원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은 것 같다. 이 말대로라면 폐쇄적이고 팽박하여야 하는데, 나 스스로는 아직 그렇지 않다고 본다.…… 글은 마땅히 성인의 道를 전해야한다. 성인의 도를 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어찌 꼭 옛 방식을 고집해야하는가? 지금 스승이 있는가? 永叔은 어찌 여기에 정성을 쏟는가?17)

石介는 문장이란 성인의 道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歐陽修가 그 근원을 깊이 알지 못한 채 자신을 오만하다 비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歐陽修는 이러한 반박 편지에 사적인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上杜中丞論擧官書>를 보내 石介를 추천했다. 원래 歐陽修가 어사중승 杜衍에게 石介를 御史臺主簿로 써 줄 것을 추천하면서 <與石推官書>를 써 보낸 것이다. 歐陽修가 石介를 추천하면서 그의 부족한 점을 충고한 것인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石介의 성품이 원만하지 못하고 스승 范仲淹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御史臺主簿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石介가 정치적으로 좌절되자, 歐陽修가 상서를 올려 그를 대변했던 것이다.

石介의 사람됨이 강직하고 절개가 있으며, 학문에 힘쓰고 시비를 분별하는 것을 좋아하니 진정으로 의로움을 좋아하는 선비이다. …… 또한 御史臺의 主簿는 言事의 잘못을 따지는 관직이어서 대개 御史臺에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정직하고 강직하며 꺼리거나 회피하지 않는 이가 직분에 잘 맞습니다. 지금 石介가 아직 御史臺의 문지방을 밟지는 않았지만 이미 언사를 사용하여 직분을 잃었으니 진실

17) <徂徠石先生文集·答歐陽永叔書>: 書中言自許太高, 詆時太過, 其論若未深究其源, 此則自蔽塞, 自有所未見也…… 書當傳聖人之道者也. 能傳聖人之道足矣, 奚必古有法乎? 今有師乎? 永叔何孜孜于此乎?

로 정직하고 강직하며 꺼리거나 회피하지 않은 것입니다. 石介의 재주를 헤아려 보면 主簿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바로 御史를 맡을 만 합니다. 일을 담당한 자가 사람을 알아보는 현명함이 있지만 石介가 담당한 자에게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약 石介가 윗사람을 거스르고 한 말이 옳다 해도 반드시 도와서 변론을 해야 하며, 만약 그 말이 그르다면 의당 추천받은 자가 主簿가 되어야 합니다.18)

이처럼 歐陽修가 石介를 적극 대변했음에도 불구하고 石介가 파면된 이유는 歐陽修가 말한 대로 石介 본인의 개성이 지나치게 강하고 강직한 성품 때문으로 여기는 것 외에 혹자는 仁宗이 여색에 빠져있는 것을 질책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19) 滕子京도 이 일로 인해 諫言을 했다가 폄적되었는데, 石介의 간언이 滕子京보다 더욱 간절했기 때문에 仁宗의 노여움을 사 기회를 틈타 그를 파면한 것으로 이해된다. 歐陽修가 여러 차례 石介를 위해 진심어린 충고를 했는데, 石介는 파직되고 나서야 깨달았던 것이다.

歐陽修의 石介에 대한 우정과 의리는 石介가 죽은 뒤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지켜진다. 慶曆 5年(1045) 石介가 夏竦의 박해를 받아 죽었는데, 보수파들이 계속해서 그의 생전의 일을 들추어내어 관에서 시신을 꺼내 개혁파들을 제거하려 했다. 그러자, 당시 滁州로 폄적되어 간 歐陽修가 이 일을 듣고 분개해서 <讀徂徠集>20)과 <重讀徂徠集>21)을 썼다. 宋 仁宗이 范仲淹, 富弼 등의 개혁세력을 등용하여 慶曆新政을 추진할 때 石介도 이에 대해 찬성하고 나라의 흥성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개혁파를 지지하고 보수파를 간신으로

18) <歐陽文忠公集·上杜中丞書>: 介爲人剛果有氣節, 力學喜辯是非, 真好義之士也. …… 且主簿于台中, 非言事之官, 然大抵居台中者, 必以正直剛明不畏避爲稱職. 今介足未履台門之闕, 而已用言事見罷工, 眞可謂正直剛明不畏避矣. 度介之才, 不止爲主簿, 直可任御史也. 是執事有知人之明, 而介不負執事之知矣. …… 若介雖忤上而言而是也, 當助以辯, 若其言非也, 猶宜曰所學者爲主簿爾.

19) <歐陽文忠公集·上樞密使王曾書>: 正月以來, 聞既廢郭皇后, 寵幸尙美人, 宮廷傳言, 道路流布. 或說聖人好近女色, 漸有失德. 自七八月以來, 所聞又甚, 或言倡优日戲上前, 婦人朋淫宮內, 飲酒無時節, 鐘鼓連晝夜.

20) <歐陽文忠公集·讀徂徠集>: 徂徠魯東山, 石子居山阿. 魯人之所瞻, 子與山嵯峨. 今子其死矣, 東山誰復過. 精魄已埋沒, 文章豈能磨. 壽命雖不長, 所得固已多. 旧稿偶自泉, 滄溟之一蠶. 其余誰付與, 散失存几何. …… 生爲舉世疾, 死也魯人嗟. ……

21) <歐陽文忠公集·重讀徂徠集>: 我欲哭石子, 夜開徂徠編. 開編未及讀, 涕泗已漣漣. 勉盡三四章, 收目輒忻歡. 切切善惡戒, 丁寧仁義言. …… 忽開子遺文, 使我心已寬. 子道自能久, 吾言豈須鏘.

간주하고 비난했다. 보수파 중에 夏竦이란 자가 石介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아 원한을 품게 되었다. 이후에 夏竦이 여종에게 石介의 필체를 모방하여 서신을 쓰게 하고 그것을 富弼에게 전달했다. 그 서신은 石介와 富弼이 仁宗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황제를 세운다는 것으로 역적의 모함을 받게 된다. 개혁파들이 이에 대해 변호를 하는 것이 매우 난감했고 관직을 떠날 것을 자청했다. 夏竦이 꾸민 일로 인해 개혁파들이 파직되었고 石介도 결국 濮州로 폄적되어 조정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그런데도 夏竦은 그를 내버려두지 않고 거짓으로 죽은척하고 실은 살아있으며 契丹을 찾아가 구원병을 요청할 거라고 모함했다. 仁宗은 夏竦의 讒言을 믿고 관을 열어 시신을 확인하라고 명했다. 다행히 그를 추앙하는 이들이 관을 보호한 덕분에 관을 지켜내기 했지만 황제의 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치욕을 당했다.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歐陽修는 시문으로 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sup>22)</sup> 이 때문에 石介는 죽은 후 20년만에야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그의 아들 師訥, 문인 姜潛, 杜默, 徐遁 등의 청이 받아들여졌다.

歐陽修가 同僚, 知友였던 石介를 위해 <徂徠石先生墓志銘>을 써서 그를 높이 평가했다.

천하의 선비들과 더불어 모두 주공과 공자의 무리가 되어 그 임금을 요순과 같은 임금이 되게 하고 그 백성을 요순의 백성과 같이 되도록 하고자 하여 또한 일찍이 하루도 마음 속으로 조금도 잊은 적이 없었다. 세상을 거스르고 무리를 놀라게 하는 데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혹 비웃었는데,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로써 군자들이 그 행동을 살피고 그 말을 신뢰하고 그 마음 씀을 미루어서 그 뜻을 애달파했다.……선생이 이미 돌아가시니 처자가 춤고 굶주려 스스로 견딜 수가 없었다. 지금 승상 한기와 하양의 부필이 함께 봉록을 쪼개어 받을 사서 그들을 먹여 살렸다. 21년 후에 그 집안이 비로소 모 곳에 선생을 매장할 수 있었다. 매장을 하려 하는데 그 아들 사눌이 그 문인 강잠과 두목과 서둔 등과 함께 와서 고하였다. “비방이 그쳤으니 선생의 빛나심을 발할 수 있도록 감히 명을 써 주실 것을 청합니다.” 내가 말하였다. “나의 시에서 말하지 않았는가? ‘그대의 도가 자고로 오렐 갈 수 있다.’ 하필이면 내게 명을 써달라는가?” 서둔 등이 말

22) 王瑞來, <“子道自能久”——歐陽修《重讀徂徠集》詩>(《文史知識》, 2013) 참조.

하였다. “그렇긴 하지만 노 땅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이에 그를 위해 명을 써 말한다.

조래산이 높고도 험준한 것이 그대의 덕과 같고 노 사람들이 숭상하는 바다. 문수가 넘실거리니 그대의 도와 같이 멀고도 오래도록 흐르네. 도를 행하기 어려우니 공맹 또한 바빠 설 거름이 없었는데, 한 때 잠깐 근경에 처했지만 만세에 빛나네! 내가 천명을 얻지 못한 까닭이 어찌 조작과 장창에게 있는가? 자고로 성현들이 모두 그러하였으니 아아 그대가 몸은 훼손되었으나 어찌 가슴 아프겠는가?<sup>23)</sup>

歐陽修의 石介를 향한 깊은 우정과 정치적 동지로서의 입장이 잘 담겨있다.

明道 2년(1033) 石介가 鄆州推官일 때 仁宗의 즉위로 정치적 최대 변혁기를 맞았다. 태후 劉氏가 죽고 仁宗이 親政하자, 태후의 잔당 呂夷簡, 夏竦, 晏殊 등이 모두 파면되었다. 오래지 않아 眞宗이 유태후의 반대파 李迪을 재상으로 등용하고 范仲淹, 范諷 등을 諫官으로 임명했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石介와 교류하는 사이여서 石介 역시 함께 등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1030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스승 孫復을 따르며 정치적 이상을 품었다. 그런데, 그가 <慶曆聖德頌>을 지어 보수파들과 심한 갈등을 야기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시점을 경계로 개혁파들에게조차 비난을 받았다.<sup>24)</sup> 그 후 둘의 정치적 포부와 이상은 일치하였으나 고문을 회복하려는 입장은 난삽함과 평이함으로 나뉘어서로 달랐다.<sup>25)</sup> 石介는 ‘宋初三先生’의 하나로 孫復, 胡瑗이 학문을 강설한 것

23) <歐陽文忠公集·徂徠石先生墓誌銘>: 思與天下之士皆爲周孔之徒, 以致其君爲堯舜之君, 民爲堯舜之民, 亦未嘗一日少忘於心. 至其違世驚衆, 人或笑之, 則曰吾非狂癡者也. 是以君子察其行而信其言, 推其用心而哀其志. ……先生既歿, 妻子凍餒不自勝, 今丞相韓公與河陽富公, 分俸田以活之. 後二十一年, 其家始克葬先生於某所. 將葬, 其子師訥, 與其門人姜潛杜默徐通等來告曰, 謗焰熄矣, 可以發先生之光矣, 敢請銘! 某曰, 吾詩不云乎, 子道自能久也. 何必吾銘? 通等曰, 雖然魯人之欲也. 乃爲之銘曰, 徂徠之巖巖, 與子之德兮, 魯人之所瞻! 汶水之湯湯, 與子之道兮, 逾遠而彌長! 道之難行兮, 孔孟亦云遑遑! 一世之屯兮, 萬世之光! 曰吾不有命兮, 安在夫桓魋與臧倉! 自古聖賢皆然兮, 噫! 子雖毀其何傷!

24) <慶曆聖德頌>은 石介가 國子直講이었을 때 呂夷簡이 재상 자리에서 물러나고 仁宗이 范仲淹, 韓琦, 富弼 등을 등용하여 慶曆新政을 추진하게 되자, 이를 기뻐하며 쓴 시이다. 石介는 이 시를 지어 조정의 인재 등용을 가송했는데, 이로 인해 반대파들의 미움을 크게 샀다. 杜衍 등이 적극 변호해서 죄는 면했으나 정치적으로 좌절하게 되었다.

25) 王文祿, <文脈·卷三>: 歐陽六一, 過豐腴而乏清勁, 不及孫明復, 石徂徠之簡健. 予曰, 歐陽肉多而骨少, 孫, 石肉少而骨多.

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정치에 투신하였다. 慶曆 3년 杜衍,<sup>26)</sup> 范仲淹 등이 집정한 초기에 그는 <慶曆聖德頌>를 지어 대신들을 포폄하고 邪正을 분별하여 보수 세력과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에 대해 歐陽修는 <徂徠石先生墓誌銘>에서 다음과 같이 전한다.

선생의 모습이 후덕하시고 기운이 완정하시며 학문이 두터우시고 뜻이 컸다. 비록 초야에 계셨지만 천하의 근심을 잊지 않으셨다. 석개가 말하였다. “해선 안 될 시기가 없고 되지 않는 일이 없다. 지위에 있지 않아도 그 말을 행한다. 나의 말이 쓰여 공리가 천하에 베풀어지니 반드시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아도 되며 나의 말이 쓰이지 않으면 비록 화와 죄를 얻고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가 일을 만나 발분하여 문장을 지으셨는데 고금의 치란과 성패를 다 열거하시어 당세의 현명하고 어리석음과 선과 악을 지적하여 풍자하셨다. 옳은 것을 옳다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는데, 꺼리거나 피함이 없었다. 세속에서는 자못 그 언사에 놀랐다. 이로 말미암아 비방이 그치지 않고 소인배들이 더욱 그를 질시하고 미워하여 서로 힘을 써서 기필코 죽음으로 밀어내었다. 선생이 태연하여 미혹되지도 않고 변색하지도 않으며 말하였다. “나의 도가 진실로 이와 같다. 나의 용기가 맹분을 능가한다!” 불행히 병을 얻어 죽었는데, 죽고 나니 간신배들 중 대신들을 뜻밖의 화로써 중상모략하고자 하는 자가 오히려 선생을 가리켜 선생이 일을 일으켜 선생이 죽은 척 가장하고 북쪽 설단으로 도주했으니 청컨대 관을 열어 증명하려고 말했다. 천자가 인자하고 성덕하심에 힘입어 그것이 거짓임을 살펴 관을 열지 않고 그 처자를 보호하고 온전히 할 수 있었다.…… 부모상을 당하여 관직을 그만두고 세수도 하지 않고 맨발로 조래의 산 기슭에서 몸소 밭을 갈고 오대 중에서 아직 장례를 행하지 않은 자 70명을 장사지냈다. 상복을 벗고 국자감직강으로 불러 들여졌다. 이 때 원호를 특별하는데 오래도록 공이 없어서 해내가 몹시 곤궁해졌다. 천자가 분연히 위엄과 덕을 일으키고자 대신 두 셋을 승진시키고 퇴진시켜 간관과 어사를 증설하였는데, 다스림을 구하는 뜻이 매우 강했다. 선생께서 환히 기뻐하시며 말씀하시었다. “이는 성대한 일이다! 아송이 나의 직분이니 그 만들 수 있겠는가?” 이에 <경력성덕시>를 지어 대신들을 포폄하고 잘못되고 바른 것을 분별하여 수백 언이 되었다. 시가 나오자 태산 순명복이 말하였다. “그대의 화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명복은 선생의 사우이다. 그 후 소위 간신배들이 엉뚱한 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시에서 지적되고 있다.<sup>27)</sup>

26) 《宋史·三百十》: 杜衍字世昌越州山陰人。父遂良仕。至尙書度支員外郎。衍總髮苦志厲操。尤篤於學。擢進士甲科。補揚州觀察推官。改秘書省著作佐郎。知平遙縣。

27) <歐陽文忠公集·徂徠先生墓誌銘>: 先生貌厚而氣完。學篤而志大。雖在畎畝。不忘天下之



歐陽修는 이러한 石介의 과감하고 회피하지 않는 정신을 칭찬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지나치리만큼 스스로를 고아하다 여기는 것에 대해 경계하기도 하였다.<sup>28)</sup> '先生'을 제목에 붙여 됴으로써 그가 훌륭한 스승임을 강조하고 끝은 절개와 정확하고 분명한 사리 판단, 그리고 효심 등을 제재로 표현하였다. 역시 유가적인 덕목에서 孝를 빼놓지 않았으며 지극히 이치에 타당하고 현실적인 유가적 가치관을 표출한 것이라 하겠다.

石介는 宋代 理學의 개창자로 학문을 좋아하여 太學에서 강의하고 학생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성품이 유연하지 못하고 개성이 강해서 독자적인 행동을 많이 한 관계로 세상의 비난을 샀다. 조정의 정쟁에 휘말려 훌륭한 재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상을 펼치지 못한 채 40세의 나이로 일찍 생을 마감했다. 그는 죽은 후에도 夏竦의 모함으로 관을 열어 시신을 확인할 뻔했기 때문에 그와 교유한 지인들과 가족들까지 심한 고통을 겪어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歐陽修는 그의 억울함을 시문을 통하여 표출하며 끝까지 우정을 지켜냈다. 이처럼 歐陽修와 石介는 개인적 친분과 학술적 知友, 정치적 동지로서 교유하며 깊은 영향 관계에 있었으며, 北宋의 문단과 정치, 학술을 함께 이끌었다.

---

憂。以謂時無不可爲，爲之無不至，不在其位，則行其言。吾言用，功利施於天下，不必出乎己，吾言不用，雖獲禍咎 至死而不悔。其遇事發憤，作爲文章，極陳古今治亂成敗，以指切當世賢愚善惡，是是非非，無所諱忌。世俗頗駭其言，繇是謗議喧然，而小人尤嫉惡之，相與出力擠之死。先生安然不惑不變曰，吾道固如是，吾勇過孟賁矣。不幸遇疾以卒，既卒，而姦人有欲以奇禍中傷大臣者，猶指先生以起事，謂其詐死而北走契丹矣，請發棺以驗。賴天子仁聖察其誕，得不發棺，而保全其妻子。……丁內外艱去官，垢面跣足，躬耕徂徠之下，葬其五世未葬者七十喪，服除，召入國子監直講。是時兵討元昊久無功，海內重困，天子奮然思欲振起威德，而進退二三大臣，增置諫官御史，所以求治之意甚銳。先生躍然喜曰，此盛事也！雅頌吾職，其可已乎？乃作慶曆聖德詩，以褒貶大臣，分別邪正，累數百言，詩出，太山孫明復曰，子禍始於此矣。明復先生師友也。其後所謂奸人作奇禍者，乃詩之所斥也。

28) 《宋史·石介傳》：會徐狂人孔直溫謀反，搜其家得介書，夏竦銜介甚，且欲中傷杜衍等，因言介詐死，北走契丹，請發棺以驗。詔下京東訪其存亡。衍時在兗州，以驗介事語官屬，衆不敢答，掌書記龔鼎臣愿以闔族保介必死，衍探懷出奏稿示之，曰，老夫已保介矣，君年少，見義必爲，豈可量哉！提点刑獄呂居簡亦曰，發棺空，介果北走，孛戮非酷。不然，是國家無故剖人家墓，何以示後世？且介死必有親族門生會葬及棺斂之人，苟召問無異，即令具軍令狀保之，亦足應詔。于是衆數百保介已死，乃免斫棺。

## 4. 나가며

북송 시기 고문운동을 이끌던 歐陽修는 다양한 문인집단과의 교류 활동을 통해서 정치적 문학적 발전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宋初 三先生으로 불리는 孫復, 胡瑗, 石介와의 교류는 북송시기 문단을 주도하던 많은 수의 학자와 문학자, 정치가 등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북송 고문의 창작과 발전으로 이어졌다.

본고에서는 宋初 三先生 가운데 歐陽修와 石介의 文道觀을 이해하고 歐陽修와 石介와의 교류 양상에 초점을 두고 양자의 견해상의 異同을 살펴보았다. 歐陽修가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道를 추구하고 평이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현하고자 했다면, 石介는 기이하고 특이함을 통해 개성적인 문장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들은 慶曆新政의 개혁을 함께 도모하고 佛家와 道家에 반대하며 儒家를 숭상한 점, 부화한 문풍에 반대하고 古文을 지향한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자의 길을 달리했다. 歐陽修는 石介가 佛老를 괴이한 것으로 완전 부정한 것의 영향을 받았지만,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취하고 전면적인 부정을 하진 않았다. 楊億의 西崑體를 비판하는 태도 역시 차이가 있다. 石介는 문장은 道를 구현하면 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西崑體를 비판하고 문학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歐陽修는 그 예술성을 인정하고 문장의 내용과 형식의 조화를 추구하며 時文의 형식을 긍정적으로 수용했다.

歐陽修와 石介는 정치적 이상과 문학관을 공유하며, 北宋古文運動과 經歷新政을 추진했으며, 교류를 통해 진정한 우정을 돈독히 하며 충고를 기탄없이 주고받는 사이였다. 이들의 교류는 북송의 정치와 문단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향후 胡瑗, 孫復과의 교류 양상으로 확대하여 연구한다면 古文運動과 그것을 실천한 中國古典散文의 史的 변화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 王文祿 撰, 《文脈》, 白陵學山本, 北京: 商務印書館, 1937.
- 脫 脫 等著, 《宋史》, 北京: 中華書局, 1985.
- 石 介 著, 陳植鏗 點校, 《徂徠石先生文集》, 北京: 中華書局, 2009.
- 歐陽永叔 著, 《歐陽修全集》, 北京: 中國書店, 1986.
- 黃宗義 撰, 全祖望 補修, 《宋元學案》, 北京: 中華書局, 1986.
- 顧永新, 《歐陽修學術研究》,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3.
- 姚艷麗, 《石介與宋初文學》, 華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
- 張 君, 《宋初三先生“治道”思想初論》, 中國政法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
- 趙耀堂, <論宋初作家石介>, 《聊城大學學報(社會科學版)》 04期, 1987.
- 潘富恩, 徐余慶, <論石介>, 《山東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04期, 1987.
- 莫道才, <石介與蘇舜欽: 誰是《石曼卿詩集序》之作者>, 《文學遺產》 04期, 2002.
- 李峻岫, <石介交游考>, 《文獻》 01期, 2002.
- 黃寶華, <北宋古文運動發微>,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04期, 1995.
- 楊國安, <歐陽修石介與宋代韓學的興盛>, 《史學月刊》, 04期, 2003.
- 黃 海, <從歐陽修對石介的批評看他的文學思想>, 《安順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01期, 2006.
- 何利華, <石介“氣”思想之淺論>, 《安徽文學(下半月)》 10期, 2007.
- 李承信, <范仲淹과 歐陽修의 교유관계 연구>, 《中國學論叢》 제 26권, 2009.
- 樓 培, <北宋洛陽文人集團與南北文學的衝突和融合>, 《中華文史論叢》, 2012.
- 王瑞來, <“子道自能久”——歐陽修《重讀徂徠集》詩>, 《文史知識》, 2013.

< Abstract >

A Study on Effects on the Ancient Prose Movement in the Northern Song Dynasty of Songchusanxiansheng(宋初三先生): Focused on Ouyangxiu(歐陽修) and Shijie(石介)'s Companionship

Lee, Seungshin

Ouyangxiu and Shijie are important politicians, Confucians and writers in Northern Song Dynasty. They are good friends and colleagues. Their literature thought is a part of new movement of the Culture Revolution of poem and prose. Ouyangxiu advocated as representative at that time. In the process Sunfu, Huyuan, Shijie called Songchusanxiansheng are highly influential figures. Especially Ouyangxiu and Shijie's companionship is more important. They share thoughts of advancing Confucianism, influencing the Writing style, encouraging people. But they have different opinions in writing style and thoughts. Xikunti, Buddhism and Taoism was violently antagonized by Shijie, but Ouyangxiu has a moderate opposition on them. Ouyangxiu accepted a rhetorical device of Xikunti.

Key words: Ancient prose Movement, Ouyangxiu(歐陽修), Shijie(石介), Songchusanxiansheng(宋初三先生), Huyuan(胡瑗), Sunfu(孫復), companionship, Northern Song Dynasty, good friends, colleagues.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8. 1. 31.	2018. 3. 9	2018. 3. 10.	2018. 3. 19.	2018. 3. 31.